

시설보호 청소년의 셀프리더십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송연주¹, 임선영^{2*}

¹마음이 심리상담연구소, ²한림대학교 심리학과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Leadership and the Level of Career Maturity of the Fostered Adolescents at Youth Shelter :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ong, Yeon Joo¹, Im, Sun-Young^{2*}

¹Maeumi Psychology Counseling Center, ²Dept. of Psychology Hallym UNI.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시설보호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셀프리더십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시설보호 청소년 총 5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4월 17일부터 5월 10일까지 약 3주에 걸쳐 직접 응답받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48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Statistics 21.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신뢰성 분석을 통해 측정항목의 내적일관성을 검증하였고, 신뢰성이 검증된 변수에 대해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설보호 청소년의 셀프리더십과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과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보호 청소년의 셀프리더십 전체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둘째, 시설보호 청소년의 셀프리더십 중, 행동중심적 전략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셋째, 시설보호 청소년의 셀프리더십 중, 자연적보상 전략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넷째, 시설보호 청소년의 셀프리더십 중, 건설적사고 전략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셀프리더십이 진로성숙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정작 시설보호 청소년의 진로에 대해 고민이나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논의하였고,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study was carried out by surveying 500 fostered teenagers at youth shelters in the Capital area via onsite visit over about three weeks from April 17 to May 10, 2018; 487 samples out of 500 questioned subject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was verified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all of self-leadership variables and the career maturity of the fostered adolescents at youth shelters. Second,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was verified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the action-oriented strategy, which is one of the self-leadership variables, and the career maturity of the fostered adolescents at youth shelters. Third,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was verified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the natural compensation strategy, which is one of the self-leadership variables, and the career maturity of the fostered adolescents at youth shelters. Fourth,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was verified to have a full mediating effect between the constructive thinking strategy, which is one of the self-leadership variables, and the career maturity of the fostered adolescents at youth shelters.

Keywords : Fostered Adolescents at Youth Shelter,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areer Maturity, Mediator

본 논문은 송연주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Im, Sun-Young(Hallym UNI.)

email: actrice7@hanmail.net

Received September 18, 2019

Accepted December 6, 2019

Revised October 31, 2019

Published December 31, 2019

1.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이혼율 증가와 자녀양육 기피 현상으로 인해, 시설보호대상이 되는 아동 및 청소년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의 양육 및 교육의 책임을 감당할 수 없어 아동이나 청소년이 위급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 시설보호 기관에서 양육을 맡고 있으며, 시설양육의 최종목표는 시설을 떠난 아동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만 18세가 되면 시설보호 청소년들은 모두 퇴소해야 하고, 퇴소 후엔 바로 생활기반의 마련을 위해 직업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보호 청소년들에게는 진로준비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시기에 진로선택이라는 상황에 대해 충분한 인식이 발달하지 못하여 주위의 친구를 따라서, 또는 부모님 및 선생님이 선택해주는 대로 진로를 택하는 경우가 있다. 부모가 없는 시설보호 청소년의 경우, 일반 청소년들보다 진로선택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설보호 청소년들은 자신의 발달시기에 따라 형성되어지는 적절한 진로성숙도는 일반 청소년들 보다 아주 중요하다.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우선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로성숙도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셀프리더십의 정도에 따라 진로행동에 따른 진로성숙도가 증가한다는 일관된 보고가 있다[1]. 특히 셀프리더십은 청소년의 학교적응력을 높여 개인의 진로를 찾아가는 적응력에 원활한 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2], 셀프리더십 프로그램 역시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의 긍정적 영향을 주어 진로인식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다[3]. 이를 통해 셀프리더십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시설보호 청소년은 부정적 양육환경과 낮은 부모의 지지로 인해 자기효능감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4]. 현재 자기효능감이 낮은 청소년들에 대해서 진행되는 연구의 경우 멘토링 활동, 대인관계문제해결 프로그램,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자기성장 프로그램,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다는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다[5]. 또한 시설보호 체계에서 성장한 청소년들도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을 때 자기효능감이 향상된다고 하였다[6].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시설보호 청소년은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향상되고,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친사회적인 행동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와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고[7],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학교적응과 학업성적에 변화를 주어 진로성숙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8].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셀프리더십과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시설보호 청소년

시설보호청소년은 '보호자로부터 분리되어, 청소년 양육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만 12세 이상에서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9].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10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의 종류는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전용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상담소, 지역아동센터,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있다. 현재의 아동복지시설 보호는 아동양육시설보호가 대표적인 시설보호이다[10].

시설퇴소청소년은 만 18세에 퇴소 후 삶을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11]. 퇴소청소년은 거주할 집을 구해야하고 재정적 지원, 건강보호, 사회적 지지 및 보호의 테두리 안에서 제공 받았던 서비스를 스스로 유지해야 하는 현실 앞에 당황하게 된다[12]. 많은 퇴소청소년은 안전하게 거주할 집, 직업, 정신적·신체적 건강 유지, 그들의 일상의 욕구 충족을 위한 자원 확보 등 스스로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13].

시설퇴소청소년들이 겪는 취업문제, 주거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은 원가족과의 관계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과 퇴소 후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자립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9]. 최근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반청소년보다 높은 사회적응능력을 보이는 시설청소년이 많아졌고, 높은 역량수준과 탄력성을 지닌 시설청소년들은 내적 갈등과 외적 충격들을 인내하면서 이타적 행동과 친사회적 태도를 발달시켜 자기성찰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음을 확실히 할 수 있다[14]. 그동안 시설청소년들의 발달과 적응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시설청소년들의 시설적응의 어려운 상황과 원가족의 불안정한 양육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시설청소년의 대부

분이 부적응적인 성격발달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성격과 기질이 외부의 지지요인에 따라 다른 적응과 발달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2.2 진로성숙도

진로성숙에 대해 Super(1957)는 진로성숙도란 직업탐색에서 퇴퇴기까지 이르는 직업발달의 연속선상의 한 도달점 내지 발달의 정도를 말하며, 직업성숙은 정신연령이란 개념과 비슷한 직업연령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15-16]. Crites(1974)는 Super(1957)의 진로발달이론을 기초하여 자신의 연령에 맞는 진로를 대처할 수 있는 준비도를 진로 성숙이라고 개념화하였으며, 동일 연령층의 상대적인 직업준비 정도로서, 보다 일관되고 정확하며 현실적인 진로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진로성숙이라고 정의하였다[17].

국내 연구 중, 신승원(2012)은 진로성숙도에 대해 개인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력으로 진로를 현명하게 준비하고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숙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18]. 또한, 강정임(2013)은 개인의 전 인생 발달 단계에 걸쳐 일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준비, 계획하며 선택하고 결정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을 진로성숙이라고 정의하였다[19].

2.3 셀프리더십

Manz(1986)는 셀프리더십이 자아발견과 자기만족을 향한 여행이며, 자기효능감을 위한 기술,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이고, 행동통제의 기초와 자아완성의 학습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20]. 또한, Neck, Stewart와 Manz(1995)는 과업수행에 따른 자기방향 설정과 스스로 동기를 부여해서 자신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21]. 남기연과 김경아(2011)는 셀프리더십이란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기 위해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여 자신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았다[1]. 박명신(2015)은 성인학습자의 셀프리더십을 강조하였으며 인지적 전략과 초인지적 전략을 사용하여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자기통제와 자기관리를 통해 기대하는 성과의 달성과 만족을 얻는 것이라고 하였다[22].

2.4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 문제는 중요한 발달 과업중의 하나로, 성인

의 발달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 진로선택 과정에 있어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확신성으로[23], 직업과 연관된 의사결정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24].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진로결정 과업을 시작하여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전공, 학문, 직업선택, 진로의사결정, 진로탐색활동 등의 영역에서도 결정적인 예언력을 가지고 있다[25]. Hackett와 Betz(1981)에 의하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수행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고 하였으며[24], 신정옥(2012)은 진로결정의 과업 또는 성취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개인의 내재적 변인으로 정의하였다[26].

2.5 선행연구 검토

셀프리더십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신승원(2012)의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이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27]. 셀프리더십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직접적으로 보고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다수의 연구들[28-30]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1,7]을 근거로, 셀프리더십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즉, 셀프리더십과 진로성숙도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했을 때, 진로성숙도 수준에 셀프리더십이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한나리와 전지현(2012)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셀프리더십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도 높음을 입증하였다[29]. 김보경과 정철영(2012)의 연구에서도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동기와 문제해결력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이고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28]. 셀프리더십의 동기부여적 기능을 밝히며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의 중재적 역할에 대한 증거를 찾아낸 연구[31]와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본 바탕이자 상위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32].

진로성숙도는 자신의 내적, 외적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진로 및 취업 문제를 결정하고 판단한다. 진로성

속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와 취업 분야의 연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어지고 있는 요인이며,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관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명실과 최경숙(2007)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성을 입증하였고[7],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 수준이 발달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김수리(2005)의 연구에서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발달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다[33].

3.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Fig.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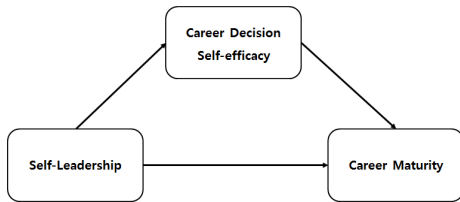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H1. 시설청소년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 H2. 시설보호 청소년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셀프리더십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들을 목록화하여 전국 소재의 아동양육시설을 표집으로 하여 설문문을 실시하고자 하였지만, 편의표집 추출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년 4월 17일부터 5월 10일까지 3주에 걸쳐 무선표집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주로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보호 청소년 총 500명에게 방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사용한 설문지의 수는

487(97.4%)부이다.

연구대상자는 남학생 235명(48.3%), 여학생 252명(51.7%)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분포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339명(69.6%),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123명(25.3%), 자퇴 및 휴학 중인 청소년은 25명(5.1%)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형제·자매 관계는 형제 66.1%(322명), 자매 33.9%(165명)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의 종교유무는 '종교가 없다'가 357명(73.3%), '종교가 있다'가 130명(26.7%)으로 종교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 연구대상자들의 함께 지내는 가족 유무는 '없다'가 377명(77.4%), '있다'가 110명(22.6%)으로 함께 지낼 가족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Statistics 21.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신뢰성 분석을 통해 측정항목의 내적일관성을 검증하였고, 신뢰성이 검증된 변수에 대해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설보호 청소년의 셀프리더십과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과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3.3 측정도구

3.3.1 청소년의 셀프리더십

청소년의 셀프리더십 측정도구는 Houghton과 Neck(2002)이 개발한 RSLQ(revised self leadership questionnaire) 측정도구[34]를 이종찬과 홍아정(2013)이 번안해 국내 실정에 맞게 문구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32]. 셀프리더십의 하위 요인으로는 행동중심 전략 18문항, 자연보상 전략 5문항, 건설적사고유형 전략 12문항 등 모두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셀프리더십의 측정방법은 각 하위의 문항을 모두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셀프리더십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는 행동중심전략 .86, 자연보상전략 .83, 건설적사고유형전략 .87과 같이 나타나 신뢰도는 양호하다.

3.3.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청소년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측정은 Betz 외(1996)가 개발한 CDMSES-SF(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scale: short form)[35]를 이기학과 이학

주(2000)가 변안해 국내 실정에 맞게 문구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36].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으로는 자기평가 5문항, 직업정보수집 5문항, 계획수립 5문항, 목표설정 5문항, 문제해결방식 5문항 등 모두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측정방법은 각 하위의 문항을 모두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는 자기평가 .74, 직업정보수집 .65, 계획수립 .76, 목표설정 .78, 문제해결방식 .70과 같이 나타나 신뢰도는 양호하다.

3.3.3 진로성숙도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측정은 Crites와 Savickas(1996)의 CMI-R(career maturity inventory revised)[37]을 Savickas와 Porfeli(2011)가 개정한 CMI-C[38]를 이종원(2015)이 번역하여 사용한 척도[39]를 사용하였으며, 관여성 6문항, 호기심 6문항, 확신성 6문항, 협의성 6문항 등 모두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진로성숙도의 측정방법은 각 하위의 문항을 모두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진로성숙도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는 관여성 .94, 호기심 .92, 확신성 .91, 협의성 .94와 같이 나타나 신뢰도는 양호하다.

4. 연구결과

4.1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변수 간 공분산 계산에 의해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 그 결과, 셀프리더십 전체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체($r=.63, p<.01$), 진로성숙도 전체($r=.38, p<.01$)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와 진로성숙도 전체($r=.40, p<.01$)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셀프리더십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과는 계획수립($r=.59, p<.01$), 자기평가($r=.56, p<.01$), 목표설정($r=.53, p<.01$), 문제해결($r=.53, p<.01$), 직업정보수집($r=.52, p<.01$) 순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과 진로성숙도 하위요인과는 협의성

($r=.39, p<.01$), 호기심($r=.35, p<.01$), 확신성($r=.33, p<.01$), 관여성($r=.32, p<.01$) 순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 하위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의 관여성($r=.37, p<.01$), 확신성($r=.37, p<.01$), 협의성($r=.35, p<.01$), 호기심($r=.32, p<.01$)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가설검증

4.2.1 셀프리더십 전체와 진로성숙도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셀프리더십 전체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2). 그 결과 3단계에서 셀프리더십 전체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eta=.22, p<.001$),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도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26, p<.001$). 이 때 셀프리더십 전체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에서는 영향력이 .38으로 나타났고, 3단계에서는 .22로 나타났으므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셀프리더십 전체와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1	1-1	1-2	1-3	2	2-1	2-2	2-3	2-4	2-5	3	3-1	3-2	3-3	3-4
1	1														
1-1	.78	1													
1-2	.73	.46	1												
1-3	.80	.59	.63	1											
2	.63	.47	.64	.58	1										
2-1	.56	.40	.54	.53	.79	1									
2-2	.52	.41	.50	.45	.75	.67	1								
2-3	.59	.47	.56	.51	.77	.74	.76	1							
2-4	.53	.40	.54	.48	.79	.78	.70	.78	1						
2-5	.53	.36	.56	.51	.78	.62	.55	.58	.59	1					
3	.38	.34	.39	.28	.40	.32	.34	.37	.34	.33	1				
3-1	.22	.27	.37	.22	.37	.30	.33	.33	.32	.30	.77	1			
3-2	.35	.32	.30	.26	.32	.25	.27	.31	.29	.29	.77	.61	1		
3-3	.33	.29	.36	.23	.37	.29	.32	.33	.31	.30	.78	.79	.62	1	
3-4	.39	.34	.36	.30	.35	.29	.30	.33	.31	.29	.79	.65	.79	.64	1
M	3.373	4.73	1.53	3.313	3.53	3.343	3.43	3.243	3.65	3.53	3.88	3.613	3.77		
SD	.47	.48	.71	.59	.56	.62	.61	.67	.70	.62	.76	.91	.80	.86	.82

$p<.01$

1:Self-Leadership Total, 1-1:Behavior Focused Strategies,

1-2:Natural Reward Strategies, 1-3:Constru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 2:Career Decision Self-efficacy Total,

2-1:Self-assessment, 2-2:Job Information Collection,

2-3:Planning, 2-4:Goal Setting, 2-5:Problem Solving, 3:Career

Maturity Total, 3-1:Involvement, 3-2:Curiosity, 3-3:Assurance,

3-4:Negotiability

Table 2.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career maturity

Stage	Independent	Dependent	R ²	F	β	t
1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40	326.11	.63	18.06***
2	Self-Leadership	Career Maturity	.15	83.56	.38	9.14***
	Self-Leadership				.22	4.14**
3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areer Maturity	.18	55.62	.26	4.87***

***p<.001

4.2.2 셸프리더십 중, '행동중심적 전략'과 진로성숙도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셸프리더십 중 행동중심적 전략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그 결과, 3단계에서 셸프리더십 중 행동중심적 전략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β=.20, p<.001),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도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31, p<.001). 이 때 셸프리더십 중 행동중심적 전략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에서는 영향력이 .34로 나타났고, 3단계에서는 .20로 나타났으므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셸프리더십의 행동중심적 전략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relationship between behavior focused strategies and career maturity

Stage	Independent	Dependent	R ²	F	β	t
1	Behavior Focused Strategie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22	136.32	.47	11.68***
2	Behavior Focused Strategies	Career Maturity	.11	62.59	.34	7.91***
	Behavior Focused Strategies				.20	4.20***
3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areer Maturity	.18	55.88	.31	6.61***

***p<.001

4.2.3 셸프리더십 중, '자연적보상 전략'과 진로성숙도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셸프리더십 중 자연적보상 전략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그 결과 3단계에서 셸프리더십 중 자연적보상 전략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β=.23, p<.001),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도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25, p<.001). 이 때 셸프리더십 중 자연적보상 전략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에서는 영향력이 .39로 나타났고, 3단계에서는 .23으로 나타났으므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셸프리더십의 자연보상적 전략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relationship between natural reward strategies and career maturity

Stage	Independent	Dependent	R ²	F	β	t
1	Natural Reward Strategie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41	337.08	.64	18.36***
2	Natural Reward Strategies	Career Maturity	.15	86.62	.39	9.31***
	Natural Reward Strategies				.23	4.25***
3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areer Maturity	.19	56.32	.25	4.72***

***p<.001

4.2.4 셸프리더십 중, '건설적사고 전략'과 진로성숙도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셸프리더십 중 건설적사고 전략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그 결과 3단계에서 셸프리더십의 건설적사고 전략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β=.08, p>.05),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35, p<.001). 이 때 셸프리더십의 건설적사고 전략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3단계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셸프리더십의 건설적사고 전략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5.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relationship between Constru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 and career maturity

Stage	Independent	Dependent	R ²	F	β	t
1	Constru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33	242.46	.58	15.57***
2	Constru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	Career Maturity	.08	41.43	.28	6.44***
3	Constru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	Career Maturity	.16	46.77	.08	1.50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35	6.93***

***p<.001

5. 결론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시설보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시설보호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셀프리더십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보호 청소년의 셀프리더십 전체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즉, 시설보호 청소년의 셀프리더십 수준이 높다면 진로성숙도 수준이 높아지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촉매제 역할을 함으로써 시설보호 청소년에게 더욱 긍정적인 진로성숙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김보경과 정철영(2012), 이종찬과 홍아정(2013)의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함으로써 더욱 긍정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효과를 준다고 한 결과를 지지한다[28,32].

둘째, 시설보호 청소년의 셀프리더십 중, 행동중심적 전략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즉, 시설보호 청소년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동기 부여하여 수행하는 행동중심적 셀프리더십 전략을 가지고 있을수록 진로성숙도 수준이 향상될 것이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함으로써 진로성숙도

수준이 증폭되어 그 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대학진학을 위한 과열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청소년의 부정적인 정서와 학교생활의 부적응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어줄 수 있는 행동중심적 셀프리더십과 같은 리더십 생활기술은 청소년의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정서를 향상시킴으로써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선행연구(이채식, 2006)의 결과를 지지한다[40].

셋째, 시설보호 청소년의 셀프리더십 중, 자연적보상 전략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즉, 시설보호 청소년이 주어진 과제에 대하여 흥미 있는 측면을 강조하는 자연보상적 셀프리더십 전략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아짐으로써 진로성숙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보호 청소년의 경우 공동체 의식과 우정이 발달하여 매사에 매우 협조적이고[41], 내적통제 성향이 강해 개인 스스로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과 학업성취도가 높다[42]고 한 결과처럼 긍정적인 성향을 보임으로써 자연적보상 셀프리더십 전략이 형성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넷째, 시설보호 청소년의 셀프리더십 중, 건설적사고 전략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즉, 시설보호 청소년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기회요인을 찾아 극복하여 대처하려는 노력을 하는 건설적사고 셀프리더십 전략을 갖는 것은 시설보호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였을 때에는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업적 자신감이 높을수록 진로탐색에 적극적으로 임한다고 한 결과가 뒷받침되어[43], 시설보호 청소년의 건설적사고 셀프리더십 전략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대학진학을 위한 과열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청소년의 부정적인 정서와 학교생활의 부적응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일반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시설보호 청소년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어줄 수 있는 행동중심적 셀프리더십과 같은 리더십 생활기술이 필요하며, 이러한 리더십 생활기술은 청소년의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정

서를 향상시킴으로써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초래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보호 청소년의 셸프 리더십 중 자연보상 셸프리더십의 향상 방안을 통하여 진로성숙도를 매개체로 하는 대안적 프로그램이 제시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시설보호 청소년에게 차별적 있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시설보호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를 강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지만, 정작 시설보호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는지 밝히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시설보호 청소년이 진로에 대해서 어떠한 고민이 있고,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시설보호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S. A. Bae, S. Y. Sung,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ollege Students'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6, No.9 pp. 271-292, 2016.
- [2] K. A. Kim, H. J. Jang, "The influence of adolescent self-leadership and manners on the adjustment to school lif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28, No.6 pp. 143-156, 2010.
- [3] J. C. Heo, "Effect of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o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adolescents on proba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5, No.11 pp. 154-164, 2015.
DOI: <https://doi.org/10.5392/jkca.2015.15.11.154>
- [4] M. J. Song,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empathy and self-efficacy of shelter children*. Master's Thesis, Yonnam University of Korea, 2015.
- [5] S. H. Kim, M. K. Park, S. M. Chun, "Effect of integrate arts therapy on self-expression, self-efficacy, and peer relationship of withdrawn youth", *Journal of Arts Psychothreapy*, Vol.12, No.3 pp. 109-136, 2016.
- [6] Y. H. Park, H. Y. Kim, "Effect of horticultural therapy on the adjustment action and self-efficacy of children in the child welfare institutions", *Journal of People, Plants, and Environment*, Vol.13, No.2 pp. 7-11, 2010.
- [7] M. S. Jo, K. S. Choi, "A model testing on ego-identity,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late adolescenc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8, No.3 pp. 1085-1099, 2007.
DOI: <https://doi.org/10.15703/kic.8.3.200709.1085>
- [8] S. J. Choi, "Latent growth curve model on career maturity and self-efficacy, SES, school record of adolescent", *Studies on Korean Youth*, Vol.18, No.3 pp. 31-57, 2007.
- [9] J. H. Kim, "The intermediary effect of ego-resilience from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for facility protected adolescent on problem behavior",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 Psychotherapy*, Vol.4 pp. 1-13, 2013.
- [10] J. R. Park, H. R. Seo, *Child welfare*. Paju: Yangseowon, 2006.
- [11] H. R. Shin, E. M. Park, H. A. Kang, H. J. Lee, K. J. Han, K. H. Kim,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policy program for supporting self-reliance on the removal of children's welfare facilities*.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 [12] M. Atkinson, "Aging out of foster care: Towards a universal safety net for former foster care youth", *Harvard Civil Rights-Civil Liberties Law Review*, Vol.43 pp. 183-212, 2008.
- [13] T. Reilly, "Transition from care: status and outcomes of youth who age out of foster care", *Child Welfare*, Vol.82, No.6 pp. 727-746, 2003.
- [14] M. S. Kim, C. S. Lee, "Mediated effects of Hop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and Independent Will of Adolescents in Residential Care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3, No.2 pp. 636-641, 2012.
DOI: <https://doi.org/10.5762/kais.2012.13.2.636>
- [15] D. E. Super,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Row, 1957.
- [16] H. Y. Lee, *Career maturity and counseling*. Seoul: Hakjisa.
- [17] J. O. Crites,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In Measuring vocational maturity for counseling and evaluation (pp. 25-39)*. Washington, DC: National Vocational Guidance Association, 1974.
- [18] S. W. Shin, "Predictors of career maturity in college students", *The Adult & Continuing Education Of Korea*, Vol.16, No.1 pp. 21-44, 2012.
- [19] J. I. Kang,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family relations, psychological separation, self-resilience,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Doctoral Thesis, Dong-A University of Korea, 2013.
- [20] C. C. Manz, "Self-leadership: Toward an expanded theory of self-influence processes in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11, No.3 pp. 585-600, 1986.
DOI: <https://doi.org/10.2307/258312>
- [21] C. P. Neck, G. L. Stewart, C. C. Manz, "Thought self-leadership as a framework for enhancing the performance of performance appraisers", *The Journal*

-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Vol.31, No.3 pp. 278-302, 1995.
DOI: <https://doi.org/10.1177/0021886395313004>
- [22] M. S. Park, "The impact on lifelong educators' communication ability and lecture ability and self leadership and adult learners' self-determination", *The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and HRD*, Vol.11, No.1 pp. 1-20, 2015.
- [23] K. M. Taylor, N. E. Betz,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22, No.1 pp. 63-81, 1983.
DOI: [https://doi.org/10.1016/0001-8791\(83\)90006-4](https://doi.org/10.1016/0001-8791(83)90006-4)
- [24] G. Hackett, N. E. Betz,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18, No.3 pp. 326-339, 1981.
- [25] R. W. Lent, G. Hackett, "Career self-efficacy: Empirical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30, No.3 pp. 347-382, 1987.
DOI: [https://doi.org/10.1016/0001-8791\(87\)90010-8](https://doi.org/10.1016/0001-8791(87)90010-8)
- [26] J. O. Shin, "Inter-relationships among career barriers, social supports,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and career decis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Vol.19, No.2 pp. 109-141, 2012.
- [27] S. W. Shin, "Predictors of career maturity in college students",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16, No.1 pp. 21-44, 2012.
- [28] B. K. Kim, C. Y. Jung, "The casual relationship amo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leadership,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areer motivation",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44, No.2 pp. 49-71, 2012.
DOI: <https://doi.org/10.23840/agehrd.2012.44.2.49>
- [29] N. R. Han, J. H. Jeon, "A research on self-efficacy of career decision-making: A case of female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office administration", *Journal of Secretarial Studies*, Vol.21, No.2 pp. 83-99, 2012.
- [30] K. S. Hur, S. W. Byun, "A study on the effect of self leadership on goal commitment: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31, No.1 pp. 23-44, 2012.
DOI: <https://doi.org/10.29214/damis.2012.31.1.002>
- [31] K. Hauschildt, U. Konradt, "Self-leadership and team members' work role performance",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Vol.27, No.5 pp. 497-517, 2012.
DOI: <https://doi.org/10.1108/02683941211235409>
- [32] J. C. Lee, A. J. Hong, "Difference and impact of university students' personal characteristics on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employabilit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6, No.1 pp. 69-92, 2013.
DOI: <https://doi.org/10.18211/kjhrdq.2013.15.3.009>
- [33] S. R. Kim, *The influence of parent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on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Doctoral Thesis, Hongik University of Korea, 2013.
- [34] J. D. Houghton, C. P. Neck,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Testing a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for self-leadershi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Vol.17, No.8 pp. 672-691, 2002.
DOI: <https://doi.org/10.1108/02683940210450484>
- [35] N. E. Betz, K. L. Klein, K. M. Taylor,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4, No.1 pp. 47-57, 1996.
DOI: <https://doi.org/10.1177/106907279600400103>
- [36] K. H. Lee, J. C. Han, "Tools for validating career attitude measurement tool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8, No.1 pp. 219-255, 1997.
- [37] J. O. Crites, M. L. Savickas, "Revision of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4, No.2 pp. 131-138, 1996.
DOI: <https://doi.org/10.1177/106907279600400202>
- [38] M. L. Savickas, E. J. Porfeli, "Revision of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The adaptability form",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19, No.4 pp. 355-374, 2011.
DOI: <https://doi.org/10.1177/1069072711409342>
- [39] J. W. Lee,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of university students' self-leadership, social support, career motiva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and career maturity*. Doctoral Thesis, Soongsil University of Korea, 2015.
- [40] C. S.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network and leadership skill of youth",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Vol.13, No.2 pp. 135-147, 2006.
- [41] E. J. Beon,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consciousness maturity, anxiety and internal-external control of institutionalized youth and regular youth*.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of Korea, 2015.
- [42] K. N. Kwon, A. J. Yoo, H. Y. Min,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care teacher,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school adjustment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40, No.5 pp. 109-118, 2002.
- [43] Y. H. So, "The effect of learners' perception on parents academic involvement on career maturity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school adjustment",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30, No.4 pp. 203-220, 2011.

송 연 주(Song, YeonJoo)

[정회원]



- 2018년 8월 : 선문대학교 심리학 석사
- 2019년 2월 : 남양주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전문상담사 마음이 심리상담연구소장

<관심분야>

아동·청소년 복지, 평생교육, 교육학, 부모교육

임 선 영(Im, Sun-Young)

[정회원]



- 2018년 9월 :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 2014년 3월 : 선문대학교 상담산업심리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상담 및 임상심리, 외상심리치료, 긍정심리학